

인공지능으로 농가 수입 20% 늘린다

농진청,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AI) 융합 전략’ 발표

농촌진흥청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농업 대전환 전략을 본격 가동하며 미래 농업을 향한 혁신의 속도를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기후위기 심화, 농촌 고령화, 노동력 부족, 지방 소멸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첨단 지능형 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AI) 융합 전략을 19일 발표했다. 농업이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략은 농업 생산성 혁신뿐 아니라 농촌 안전과 복지, 신산업 육성까지 광범위한 변화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농업을 경험 중심 산업에서 데이터·AI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농가 수입을 20% 늘리고,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20% 줄이며, 기술 개발에서 보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대비 30%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AI 융합 농업 현안 해결',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AI 시대에 맞춘 농촌진흥사업 전 과정 혁신'이라는 3대 전략과 10대

중점 과제가 마련됐다.

우선 농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대국민 AI 비서인 'AI 이삭'은 기존 단순 질의응답 서비스를 넘어, 연중 농사 계획부터 당일 농작업 결정까지 안내하는 '올타임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로 확대된다. 농가소득 조사 자료로 학습된 생성형 AI는 농가의 경영 상태를 분석해 비용을 5%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경영 솔루션까지 제공한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까지 1,000 농가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모든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도 한층 고도화된다. 농촌진흥청은 시설원예용 차세대 온실 통합관리 플

랫폼 '하이라온실'을 상용화에 적정 환경 설정과 양액 공급 등을 자동 조절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생산 효율뿐 아니라 악취 등 환경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솔루션을 확대, 민간의 우수 기술을 도입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전략의 핵심이다. 스마트폰으로 병해충 사진을 촬영하면 작물·병해충을 식별하고 방제 시기까지 제시하는 AI 진단 기술이 오는 2029년까지 82개 작물 744종 병해충으로 확대된다. 이상기상 조기경보 시스템의 정확도도 크게 개선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관련 데이터는 AI 이삭에게 통합해 농업인이 보다 손쉽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성 기반 AI 예측 모델을 통해 주요 작물의 생산량과 재배 적지 변화도 분석하여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19일, 사단법인 한국생성시파운데이션(KGAF)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을 중심으로 한 국가 AX(AI Transformation) 교육센터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체계 강화

전북디지털융합센터, 한국생성시파운데이션 협약 체결

전북 지역의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인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19일, 사단법인 한국생성시파운데이션(KGAF)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을 중심으로 한 국가 AX(AI Transformation) 교육센터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대전환 전략'과 'AI 3대 강국 실현' 로드맵에 부응하는 지역 기반 교육·연구 생태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

가 차원의 AX 교육센터를 공동 기획하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AI 및 AX 기술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 구축과 활용, AX 교육 표준화 연구,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의 산업 구조와 지역 발전 전략을 고려한 '현장 중심형 AX 교육 모델'을 마련해 기업과 공공기관 등 지역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공공갈등관리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전북개발공사는 19일 오전 본사 1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정책 및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실무 중심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무조정실 지정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의 고재근 강사를 초청해 △공공갈등의 원인 진단과 관리 방안 △갈등관리의 원칙과 절차 △주요 공공갈등 사례 분석 및 해결 경험 공유 등 실질적이고 현장 맞춤형 내용 위주로 강의가 진행됐다.

전북개발공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갈등의 사전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정책의 실행력과 도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만큼 갈등관리 역량은 조직의 필수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꾸준히 추진해 도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전북개발공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 과제 건의

간협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간담회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지난 18일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호남권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의 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익산청 청장을 비롯한 관계국·과장 및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장, 대한건설협회 전북·전남 대표 4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전남·광주 대표 6명 등 호남권 건설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이 폭넓게 공유됐다. 참가자들은 공사물량 감소, 경기침체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 제도적 개선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회는 특히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미

지급 관행 개선 △무분별한 관급자제 제도 정비 △상충되는 안전관리 법령 기준 및 중복 서류의 표준화 추진 △입찰단계 사전단속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소재지 회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이번 간담회가 안전 중심의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경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업계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몽골 시장 공략 위한 'K-Food+ 수출전략 세미나'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난 18일 진흥원 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K-Food+ 해외수출전략 세미나'를 열고 몽골 시장을 중심으로 한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 제품 중심의 수출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플랫폼형 K-Food+ 수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K-Food+ 해외수출전략 - 몽골지역

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는 전북 식품기업을 비롯해 의료영양 전문가, 연구진, 수출지원기관, 정책 담당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K-푸드 확장성과 현지화 전략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구경경 전북문화관광재단 본부장의 '왜 몽골인가?' 시장 배경과 기회' △임형식 CIRS 대표의 '몽골 시장 진입 전략: 제품등록 중심' △박유경 경희대 교수의 '기능

성식품 중심 제품개발 전략' 등이 소개됐다.

발표자들은 영양불균형이 심화되고 기능성·케어푸드 수요가 급증하는 몽골 시장에서 병원·클리닉·프리미엄 마켓 등 다양한 유통채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개발기술·생산 방식까지 결합한 플랫폼형 수출모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스마트농업 교육 성과 인정

제43회 공공HRD 콘테스트서 국무총리상 등 다수 수상

농촌진흥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주최한 제43회 공공인적자원개발경연(공공HRD 콘테스트)에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분야에서 국무총리상 등 주요 상을 수상하며 농업 분야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대회에서 △교육과정 분야 국무총리상(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발표자 방경원 농업연구사), △교수학습 분야 인사혁신처장상(부여군농업기술센터 박진영 지방농촌지도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평창군농업기술센터 박선영 지방농촌지도사) 등 총 3개 상을 휩쓸며 두각을 나타냈다.

공공HRD 콘테스트는 우수 강의법, 교육과정,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고 공공 인적자원개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 단위 대회다. 올해는 기관별 예선을 거쳐

교수학습 분야 12명, 교육과정 분야 10개 팀 등 총 22명이 본선에 진출해 열린 경연을 펼쳤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스킬 기반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농업 아카데미 과정'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 과정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기술을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돼, 현장 문제를 해결 역량 강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여군농업기술센터 박진영 지도사는 '농업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주제로 발표해 콘텐츠 기획력과 전달력을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상을 받은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박선영 지도사는 '농업혁신의 파열력 당신의 손에 달렸다'를 주제로 농업용 드론 교육과정을 다채로운 교수 기법으로 구성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